



서예전 입재식에서 테이프커팅 장면.



덕암 스님 사리를 관람객들이 둘러보고 있다.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경청하고 있다.



덕암 스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스님을 추모하는 다양한 행사가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마련됐다. 사진은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스님(사진 왼쪽)과 문도회장 도학 헤일스님 등이 유물전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매년 스님 조명하는 학술세미나 열겠다”

덕암 큰스님 탄신 1백주년 기념사업회장 도학 헤일 스님



“덕암 스님은 불이성 법륜사에 주석하시며 태고종 창종과 총무원장, 종정 등을 지내면서 법륜사 터까지 넓히신 태고종의 정신적 스승이십니다.

올해 탄생 1백주년을 맞아 스님의 유해를 되새기기 위해 사진전, 유물전, 서예전, 세미나 등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특히 스님의 사상과 가르침을 조명할 수 있는 학술 세미나는 태고보우국사 관련 세미나와 함께 매년 열 예정입니다.”

덕암 스님 추모행사를 총지휘하고 있는 도학 헤일 스님(법륜사 주지)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현재 50명 정도가 문도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한 도학 헤일 스님은 “현재 문화전승관이 위치한 불이성 법륜사는 덕암 스님이 중창한 유서 깊은 사찰임에도 스님의 발자취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법륜사의 발전을 통해 덕암 스님의 숨은 노력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덕암 스님은 살아생전에 매년 생신날 건당식을 통해 제자들에게 법맥 전수를 빼놓지 않으셨다”며 “이를 기리기 위해 이번에 전통방식으로 법맥 전수식도 열게 됐다”고 말했다.

도학 헤일 스님은 현재 (사)대륜문화연구원 이사장과 덕암화상문도회 회장, 서울 법륜사 주지, 제주 정방사 주지 등을 맡고 있다.

김주일 기자

태고종 기틀 다진 덕암 스님 향훈 기려

“내가 법계를 살피니 본래 성품이 없으며 생사와 열반 또한 모양 없도다. 만일 내게 오고감을 묻는다면 구름 흩어져 붉은 해가 서천을 비추다 하리” (열반송)

태고종 종정을 지낸 덕암 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다양한 추모행사가 열렸다.

첫날인 10월 8일 오전 10시에는 태고종 총무원과 덕암 큰스님탄신 100주년기념대법회 추진위원회 주최로 서울 불이성법륜사 3층 대불보전에서 추모대법회 입재식을 봉행했다. 이날 입재식에는 총무원장 인공스님, 기념사업회장 도학 헤일 스님 등 종단 주요스님들과 신도 200여 명이 참석했다. 입재식은 불교의식, 행사 소개, 덕암 스님 상좌들의 인사말과 추모사, 육성

법문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덕암 큰스님은 태고종을 넘어 한국불교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신 분으로 근대 선지식 중 한 분으로 인정받으셨다”며 “탄신 100주년을 맞아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되짚어보고 이를 통해 종단 발전을 도모하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덕암 스님 탄생 1백주년 맞아 행사 다양 유물전, 사진전, 서예전, 학술 세미나, 보살계, 다례제 등 열려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오후 2시에는 역시 3층 대불보전에서 서예가 양상철 선생의 서예초대전이 개막됐다. ‘선사의 향기’란 주제로 마련된 이번 전시에서는 8m 금강경 10폭 병풍과 초서 반야심경 병풍, ‘나무아미타불’ ‘관음’ ‘대광명’ 등 50여점이 선보였다. 한국서가협회초대작가인 양상철 작가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에 2005년부터 6년에 걸쳐 4회씩이나 초대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은 누리에 벽이 없고/사면에는 문이 없네/부처와 조사 조차도 올 수 없는 곳/흰 구름에 누워 한가로이 잠이나 자리”를 내용으로 하는 ‘謫庵(증암)’은 초서 특유의

휘갈리는 맛을 잘 살려 한자위에 옮겼다. 정배열로 가지런히 품꽂히게 금강경을 사경한 ‘금강반야바라밀다심경’을 보면 수행자가 쓴 것처럼 곳곳한 기상을 느끼게 해준다.

‘無枝無葉樹(무지무엽수)’로 시작되는 ‘古林(고림)’에서는 큼직큼직하게 쓴 글씨 사이로 작가의 큰 기개를 엿볼 수 있다. 양상철 작가는 “한획 한획 종이위에 일

필휘지로 펼치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작업했다”고 그간 작품 준비하며 겪은 고된 과정의 소회를 털어냈다.

이어 추모행사는 △8일 학술세미나 △10~11일 보살계 수계 법회 및 법맥 전수식 △12일 다례제·회향법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기념사업회는 추모행사기간 한국불교문화전승관내에서 덕암 스님 행적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사진전 ‘덕암큰스님의 발자취’와 스님의 사리 및 가사와 평소 사용하던 지필묵 및 경전과 고서 등 50여 유품을 진건할 수 있는 전시회도 8일부터 12일까지 마련했다.

전시회에서 만난 정영숙 보살(63)은 “스님의 손때가 묻은 유물들을 눈으로 직접 보며 스님이 살아생전 강조하셨던 화합과 원용의 정신을 되새기는 좋은 기회였다”고 환희심에 찬 얼굴로 말했다.

글=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사진=박재원 기자 wanihollo@hyunbul.com

“덕암 스님 주창 사상 큰 틀은 원용과 보살”

학술세미나 통해 덕암 스님 생애와 업적 조명

“덕암 스님(1913~2003) 사상의 핵심은 대승불교를 바탕으로 한 원용사상이다. 스님은 이를 실천해 보이고자 대륜불교문화연구원을 설립했고, 태고 보우국사의 원용 사상을 현대불교에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덕암 대종사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생애와 업적 사상 등이 학술적으로 조명된 세미나에서 도학 헤일 스님은 이같이 덕암 스님을 평했다.

10월 8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서 열린 세미나서 도학 헤일 스님은 ‘덕암 스님의 생애와 사상’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덕암 스님은 한국불교의 아픈 역사인 분규를 겪으면서 당시 승려들 가운데 90%가 취해진 상태였기에 이들을 배척하면 불교 기반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갖고 이들과 함께 하기로 마음 먹고 대처성 편에서 서서 대륜 스님과 함께 태고종을 창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학 헤일 스님은 “이런 상황에서 덕

암 큰 스님은 승려들의 현대적 교육이 필요하며, 현실에 맞는 포교를 해야한다는 사상과 이념으로 생활했던 분”이라고 회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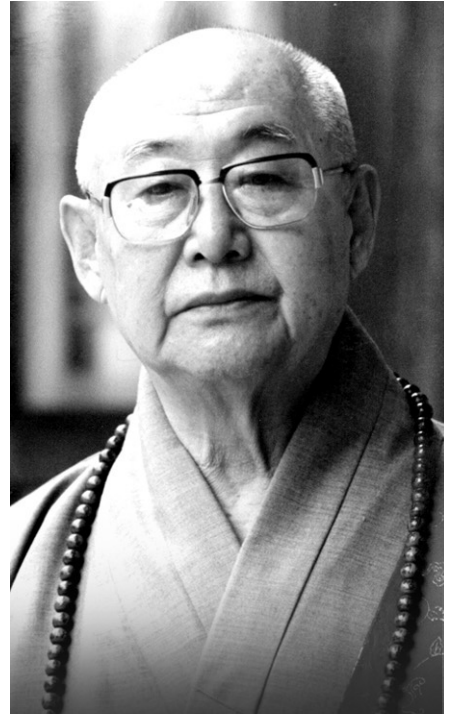
‘덕암대종사의 교화이념과 전법활동’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수암 스님(동방불교대학부학장)은 “덕암 스님이 주장하는 사상의 골격은 크게 원용불교와 보살 사상으로 압축할 수 있다”며 “모든 종파를 초월해 다같이 한마음으로 불국토를 이룩하자라는 것, 이것이 분열과 갈등과 나눔에서 하나로 가는 원용불교사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암 스님은 “덕암 스님은 법륜사 조실을 역임하며 인근대지 3필지(238평)를 매입해 법륜사 대지(202평)와 합병시킴으로써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건립의

초석을 만들었다”며 “이외에도 가람중수 사업 도제육성 교화 및 자선 사업 등으로 평생동안 법을 전하고 중생을 제도하는데 힘쓰셨다”고 밝혔다.

법산 스님(前 동국대 불교대학원장·현 동방대학원대학 석좌교수)은 이날 세미나의 총평을 통해 “덕암 스님은 태고종 창종 1세대로서 대륜대종사의 문하에서 일생동안 하신 그 많은 일들이 화쟁원용과 대승 보살도가 어떤 것인가를 온 몸으로 보여준 ‘말없는 법문’ 그 자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수행자에게 중요한 것은 원력이며 그것은 반드시 중생계를 향해야 한다는 것도 이번 세미나를 통해 느낄 수 있었다”고 평했다.

김주일 기자



덕암당 흥덕 대종사는

- 1930년 금강산 유점사서 최벽산 화상을 은사로 득도 유점사서 박운암 화상을 게사로 사미계 수지
- 1935년 일본 동경 대성학교 졸업
- 1942년 철원 심원사 불교전문강원 대학교 졸업
- 1949년 불교신문 총무국장 취임 금강산 유점사에서 대교사 법계봉수
- 1950년 (재)동국학원 감사 취임
- 1951년 조계종 총무원 재무국장 취임
- 1954년 조계종 총무원 교무부장 취임
- 1964년 조계종 종정 사서 취임
- 1968년 아차산 영화사 주지 취임
- 1970년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취임
- 1974년 한국불교태고종 중승위원장 취임
- 1975년 한국불교태고종 교육원장 취임 한·중 불교교류협의회 회장 취임
- 1978년 대륜화상문도회 회장 취임
- 1983년 대륜문도회 총재 취임
- 1984년 불교통신대학 학장 취임
- 1986년 한국불교태고종 제 13세 종정 취임
- 1995년 대륜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 1996년 태고총림방장 취임
- 1997년 한국불교금강산원 총재
- 1998년 한국불교태고종 제 16세 종정 취임
- 2003년 불이성 법륜사서 세수 91세, 법랍 76세로 입적

현대불교신문 창간 1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한국불교태고종 종정을 역임하신 불이성 법륜사 중창주 덕암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대법회가 원만히 회향될수 있도록 참석해주신 스님 및 불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덕암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앞으로 불교홍포와 종단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덕암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사업 회장 불이성 법륜사 주지 **도학 헤일 합장**